

사무엘상 3장 1-3절 말씀

- 0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
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
- 0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
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
- 0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
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웠더니

사무엘상 3장 4-9절 말씀

- 0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
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
- 0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
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
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
그가 가서 누웠더니
- 0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
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
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
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
- 0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
여호와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
- 0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
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
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
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
- 0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
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
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
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